

아·태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 위기 대응방안 논의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서 리저널 심포지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실천 방안 공유

인천시는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2022년 리저널 심포지엄(Regional Symposium)'이 22일부터 2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 간에 공공행정 분야 협력 강화와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행 가속화'와 '글로벌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엔에서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2016년 발표한 빈곤퇴치, 고품질 교육, 친환경 에너지 등 17가지 발전 목표

유엔을 비롯한 아·태지역 30여 개국의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고 정부 고위관계자, 학계 인사, 민간기구 대표 등 1,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Li Junhua)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추구하는 SDGs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인천 지

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과감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행정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이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적 파트너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이 자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인천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력 있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24일까지 진행될 심포지엄에서는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인천시가 송도컨벤시아서 리저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재난·안보·식량·에너지위기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각 세션에서 공유한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치매로부터 걱정없는 강화군 만들기 최선

인지강화 등 일상생활 치료 돌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인천 강화군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를 구현해가고 있다.

군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없이 노년을 살던 곳에서 행복하

게 보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돌봄·치료 기반 확충 △치매 친화 환경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등록된 치매 환자 2,721명에 대해 △인지강화

프로그램 △쉼터를 통한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치매 가족들이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치매 돌봄·치료



강화군 노인복지관이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판을 수여 받았다.

(사진: 인천 강화군 제공)

기반 확충을 위해 치매관리과를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의 남부권역 분소인 남부인지건강센터를 지난 7일 개관했다. 남부인지건강센터는 북부인지건강센터와 함께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마을' 지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의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과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만 △지혜의 숲 도서관 △강화군노인복지관 △비에스 종합병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가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참여했다. 또한, 선원면 창4리 등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치매로부터 걱정없는 강화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시켜야”

김대영 시의원 5분발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공동체 의식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갔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자,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



변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올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485억 원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230억여 원이다.

김대영 의원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당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화하자"며 "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찾아줌에 인천시의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이재호 연구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이재호 연구구청장,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사고 예방 만반의 조치 안전 연구구”

이재호 연구구청장이 최근 많은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과 함께 지역 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둘러보며 안전점검 활동을 벌였다. 이구청장은 지난 18일과 21일 관계자들과 함께 메가박스 송도점과 CGV 인천연수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연수구는 이달 말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분야),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분야), 공단소방서·송도소방서(소방분야)와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역 다중이용시설들을 점검 중이다. 지역 내 초고층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의 안전관리 체계 △분야별 위험요소 및 규정 준수 여부 △재난대응 지원체계 등을 현장 확인하는 일정이 다. 연구구는 이번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구구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로 안전한 연구구를 만들어 가기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편잡·정다정 기자 jid@

서구,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예방 총력

감염 취약 시설 16곳 현장 컨설팅

코로나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겨울철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감염 취약 시설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

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자 4명 중 1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감염확산 방

지,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조동 조치와 직원 방역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방역지침을 전달하는 것에 더해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해당 시설 현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건소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해 선제 검사 현황과 집단발생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감병석 서구청장은 "취약 시설의 감염 원인 분석 결과 종사자나 면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역지침이 완화된 현재 시설에 방문하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용희 기자 kangy18240@naver.com

시 보건환경연구원, 방역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수상

학술 포스터 우수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방역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포스터 발표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역학회는 국내 최초의 방역 분야 전문 학회로 감염병 관리와 방역분야의 지식 교류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연구원은 「유전자 및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체 추적관리」라는 제목의 포스터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해, 유전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모기의 이동경로 추적에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도입한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연구를 유관기관들과 공유했다.

연구원은 2009년부터 인천국제공

항 주변에 서식하는 모기를 채집해 해외에서 유입된 종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2019년에 뎅기열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유전자 분석결과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열성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공기를 통해 감염병매개체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토착종 모기가 입국 환자를 물어 감염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유입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 총 4개 지점을 선정하고 모기를 채집해 계통분류에 이용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COI 및 ND5)의 염기서열과 서식환경에 따라 다른 비율을 갖는 안정동위원소를 분석했다.

채집된 흰줄숲모기 90마리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보고된 토착종과 염기서열이 일치했으며 안정동위원소비는 탄소 -31.25% ~ -22.88%, 질소 0.98% ~ 15.57% 범위였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